

오자토의 위치



오자토



오키나와시 문화재 지도



오자토 마을에 대하여

오자토는 방언으로 "우후자토"라고 합니다. 17세기 중기의 역사자료 "류큐국 고연첩(琉球国高宛帳)"에는 "우후자토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발상이 난조시 오자토의 야지(영주)의 딸이 시집온 것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칭도 난조시 오자토에 유래한다고 합니다.

옛날 오자토 마을은 현재 마을의 북서쪽 구릉 경사면의 "에야마"라고 불리는 장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반이 약해 산사태에 시달렸으며 농지에서도 멀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야마는 구스쿠 시대(12세기-16세기쯤)의 유적이기도 합니다.

오자토는 옛부터 벼농사를 지었으며, 논이 펼쳐져 있었지만 점차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쟁 후, 미군의 아와세 비행장 건설 계획으로 인해 인접한 도바루와 함께 현재의 우루마시 아자 마에하라 고자키바루에 강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중지되어 오자토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을의 기원 장소 등은 전쟁 중의 화재와 전후의 개발로 인해 붕괴되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회를 중심으로 기원 장소와 우물을 파서 사당을 재건하는 등, 복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자토는 벼농사에 관한 행사의 하나인 우마치와 아부시바레, 줄다리기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오자토 마을 모습



Source: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website



오키나와시 문화재 지도 오자토

2017년도 발행
 발행 오키나와시 교육위원회 오키나와시립 향토박물관
 ZIP 904-0031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우에치 2-19-6 오키나와시 문화센터 3층
 TEL : 098-932-6882
 FAX : 098-933-6218

1945년 오자토 마을 모습



Aerial photograph taken by US military forces ON24146 019-2 (property of the Okinawa Prefectural Archives)



1 둔치나

마을의 불의 신을 모신 배례 장소입니다. 둔치나, 혹은 둔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장소에서 마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우사치가

처음 오자토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우물입니다. 전쟁 전에는 현재의 국도 329호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도 마을 행사 때에 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 에가 (우후가)

눈미지가 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지는 우물입니다. 가뭄 때에는 주변 마을에서도 물을 길기 위해 왔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새해 첫 물을 길었다고 합니다.



4 눈미지가 / 미카즈키가

큰 가뭄 때에는 에가만으로는 마을의 생활 용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물입니다. 미카즈키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설에는 여기서 새해 첫 물을 길습니다. 마을 행사에서도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5 다키구사이

전쟁 전에는 에야마 꼭대기에 있었고 향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매달 두 번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던 배례 장소입니다.



6 간자가

이 곳에서 간자야(대장간)를 시작한 사람이 사용하였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7 지투히누칸

지투히누칸 (불의 신)과 가미지(신의 대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음력 7월17일 시시모라시(사자춤놀이)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8 아시비나

음력 7월 17일에 시시모라시(사자춤놀이)를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부지 내에 지투히누칸(불의 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9 에야마

오자토 여섯 곳의 배례 장소가 있는 성지입니다. 예전의 오자토 마을은 이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음력 4월 15일 아부시바레(벌레 쫓아내기)에서는 산 전체에 절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구스쿠 시대(12세기-16세기경)의 유적이기도 합니다.



10 소리가

오자토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고인의 몸을 염하기 위한 물을 길는 장소였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1 누루가

노로라고 불리는 신인(神人)이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물은 모로미자토에서 온 더부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용하였고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무론자토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12 가우리가

출산할 때 얼룩진 옷이나 천을 바다에서 세탁한 후, 마무리용으로 쓰였던 우물입니다.



13 우간과무이

용궁의 신(龍宮神)을 모셨다고 전해지는 배례 장소입니다. 전쟁 전 우간과무이 근처에는 비토심상고등학교와 아마구시쿠모가 있었습니다. 유니우후구시쿠가 모모토후미아가리를 데리고 슈리로 갈 때 숨었던 장소라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치반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14 오자토의 우부가 (나지키가)

아가 태어났을 때 사용할 물을 길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나지키(이를 짓기)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지키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5 아가리베의 히게시

이 구덩이는 방화용수 저수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히게시(불을 끄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음력 4월 15일 아부시바레(벌레 쫓아내기) 행사에서 절을 올리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6 아가리가

각 문중이 아가리우마이(성지순례)에 가기 전에 기도를 올렸던 우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물은 전쟁 후 매몰되어 있던 것을 다시 파서 복원한 것입니다. 우물 앞에 있는 모래바위는 전쟁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17 이리베 신도(神道)

마을에서 성지인 에야마로 올라 가는 길입니다. 신도는 마을 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스쿠 우간주에서 간자가 근처까지 뻗어 있습니다.

